

『처음 읽는 장자』 독서 활동지

작성: 권성지(윙긴이)

표지 관찰하기

책의 표지를 살펴보세요. 『처음 읽는 장자』에서는 주인공 장자가 고양이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에 비친 ‘장자냥’의 모습은 어떤가요? 표지에서 느껴지는 장자의 인상에 대해 여러분의 느낌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표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자유롭게 적어도 좋습니다.



예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격이 느긋한 것 같다.

알아보기

장자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장자가 활동하며 사상을 펼쳤던 중국의 혼란스러운 역사적 시대는 언제일까요?

- ① 춘추전국시대
- ② 위진남북조시대
- ③ 삼국시대
- ④ 명나라

2. 장자가 지향했던 삶의 경지로, 세속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만물과 어울려 자유롭게 노니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소요유
- ② 조삼모사
- ③ 결초보은
- ④ 무용지물

3. 다음 중 장자의 절친한 친구로, 장자와 자주 티격태격하며 철학적 논쟁을 벌였던 위나라의 재상은 누구일까요?

- ① 공자
- ② 맹자
- ③ 혜시
- ④ 노자

◎ 곤과 붕 이야기 : 눈앞의 세계보다 드넓은 세계 (본문 12쪽)

이 장에 나오는 곤과 붕 이야기는 『장자』의 첫 번째 우화입니다. 장자는 상식과 일상에 갇히지 말고 보다 큰 관점을 지니며 살 것을 권합니다.

[기억하기]

1. 붕새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 남녘 바다로 날아갑니다. 곤이 풍량이 거셀 때를 고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작은 새가 커다란 붕새를 비웃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3. 장자는 먼 길을 떠나려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참고해 다음 표를 채워보세요.

목적지	준비할 사항
동네 밖 나들이	<i>하루치 먹을거리를 들고 간다.</i>
100리의 여정	
1000리의 여정	

[생각하기]

1. 장자는 ‘작은 지혜는 큰 지혜의 경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좁은 식견이나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깊은 뜻을 오해했던 적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2. 장자는 곤과 붕 이야기를 통해 눈앞의 작은 세계에 갇혀있지 말고, 드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면 먼 길을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요임금의 고민 :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최고 (본문 24쪽)

이 장에는 요와 순, 허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권력과 부귀를 멀리하는 장자의 모습과 인위가 아닌 자연을 중시하는 장자의 사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요임금에게 생긴 골칫거리는 무엇이었나요?
2. 요임금이 은자인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허유는 강가로 달려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3. 요임금이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사용했던 비유를 완성해보세요.

“천하를 해와 달로 비추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쏟아지는 비로 대지를 적시고 싶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저희를 빗대어 말하자면 저는 ()이고 선생께서는 () 이십니다. 저는 손으로 뜯 ()이고 선생께서는 쏟아지는 ()라는 말입니다!”
--

4. 허유가 임금 자리를 거절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5. 요임금을 계승한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임금이라고 생각했나요?

[생각하기]

1. 허유는 천하를 다스리는 일보다 자신의 본성에 맞게 사는 삶(굴뚝새나 두더지처럼)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은 무엇 일까요?

◎ 신기한 박 이야기 :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법 (본문 36쪽)

이 장에서는 장자의 친구 헤시가 쓸모없는 박을 부숴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는 주어진 상황이 똑같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기억하기]

1. 헤시는 왜 커다란 박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나요?
2. ‘송냥이’는 연고 제조법을 이용해 무슨 일을 했나요?
3. ‘송냥이’에게서 연고 제조법을 산 사람은 무슨 일을 했나요?
4. 친구 헤시가 커다란 박이 쓸모없다며 부숴버렸을 때, 장자는 관점을 바꾸어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말했나요?

[생각하기]

1. 단점이라 여겼던 것이나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관점을 바꾸어 장점이거나 쓸모 있는 것으로 변했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2. 장자는 사물의 쓰임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관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흔한 물건 하나를 골라, 원래 용도 외에 기발하고 새로운 쓰임새를 상상해 보세요.

◎ **하백, 깨달음을 얻다 :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기 (본문 48쪽)**

이 장에서 장자는 하백, 북해약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1. 가을비로 불어난 황하를 보며 천하제일이라 자만하던 하백(강의 신)은 무엇을 보고 자신의 작음을 깨닫게 되었나요?
2. 북해약(바다의 신)은 바다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3. 북해약이 하백에게 알려준 자만심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4. 강물 속의 새우와 개구리가 바다의 거대함을 모르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적어보세요.
2. 바다를 본 적 없는 여름 벌레에게 겨울의 눈을 설명하기 어렵듯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본 뒤에야 비로소 그 진가를 깨닫게 된 일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 **포정과 저공: 법칙을 발견하고 거스르지 않으면 무엇이든 순조롭다 (본문 60쪽)**

소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요리사 포정과 원숭이를 다루는 저공의 우화를 통해, 억지로 힘을 쓰지 않고 자연의 순리와 결을 따르는 지혜를 배웁니다.

[기억하기]

1. 요리사 포정이 무려 19년 동안이나 칼을 새것처럼 날카롭게 유지하며 소를 해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2. 원숭이를 키우던 저공이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했을 때 원숭이들이 화를 내자, 저공은 어떻게 제안을 바꾸어 원숭이들을 기쁘게 했나요?

[생각하기]

1. 포정에 따르면 평범한 요리사는 뼈를 억지로 분지르기 때문에 달마다 칼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 자신의 고집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힘이 들기 마련이지요. 순리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일이 어려워진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2. 소를 해체하는 포정과 원숭이를 다루는 저공의 공통점은 ‘순리(법칙)’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억지로 고집을 부리기보다 상황의 흐름을 잘 파악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 외발 짐승 이야기 :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으로 존재할 것 (본문 72쪽)

서로 다른 생물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남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장면을 통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본성을 긍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억하기]

1. 다리가 하나인 전설의 동물 ‘기’가 부러워한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2. 다리가 없는 뱀이 바람을 부러워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장자는 무엇을 부러워했나요?
4. 장자의 마음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나요?

[생각하기]

1. 노래기를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기’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2. 여러분도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움을 느끼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대상과 부러운 점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막연한 동경인지, 그 대상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부러운 대상	부러운 점

3.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나친 비교보다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적어봅시다.

예) 잘했던 못 했던 힘든 일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 **와각지쟁 이야기 : 우주의 넓음을 알고 자신의 작음을 깨닫기 (본문 82쪽)**

『장자』에는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사소한 다툼과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우쳐주는 우화가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위혜왕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2. 위혜왕에게 각 대신들이 건넨 조언을 정리하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름	조언
공 손 연	
	평화 상태를 지속할 것
	흘러가는 대로 놓아 둘 것
	옥신각신 다투는 것은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싸우는 것 처럼 부질없는 일임

[생각하기]

1. 어릴 적, 별것 아닌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었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2. 끝없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큰 다툼도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별것 아니었다’고 느꼈던 고민을 적어보세요.

◎ **문왕, 현자를 찾다 : 진정한 현자는 자신을 뽐내지 않는다 (본문 94쪽)**

냇숫바늘 없이 낚시를 하던 노인과 그를 알아본 주문왕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억지로 뽐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짜 고수의 태도를 배웁니다.

[기억하기]

1. 흰 수염 노인이 낚시를 하는 방식은 평범한 낚시꾼과 어떻게 달랐나요?
2. 흰 수염 노인이 정치를 하자 대신들은 어떤 걱정을 했나요?
3. 흰 수염 노인이 정치를 맡은지 3년 뒤, 나라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생각하기]

1. 자신을 태사로 모시겠다는 주문왕의 요청을 받자, 흰 수염 노인이 밤 사이 도망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2. 여러분 주변에도 '흰 수염 노인'처럼 자신을 뽐내지 않고 묵묵히 일을 수행하는 숨은 고수가 있나요?

◎ 소년, 용 잡는 꿈을 꾸다 : 과녁을 잘 보아야 빛나가는 화살이 없는 법 (본문 106쪽)

장자는 주팽만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허황된 목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기억하기]

1. 주팽만은 전 재산을 바치고 3년 동안 지옥 훈련을 견디며 천하제일의 어떤 기술을 배웠나요?
2. 주팽만이 완벽하게 터득한 그 기술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주팽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황된 목표에 집착하여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점을 느꼈나요?
2.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내가 세운 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단지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한 헛된 꿈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 오만한 원숭이와 겸손한 은자 : 빈 수레가 요란한 법 (본문 118쪽)

이 장에서는 화살을 맞은 원숭이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긴 은자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원숭이가 화살을 맞고 죽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제나라 임금과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을 좇아 몰려들자, 겸손한 은자 ‘남곽자기’는 도성으로 거처를 옮긴 뒤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생각하기]

1. 여러분도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지나치게 믿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2.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좋아요, 조회수 등)을 얻기 위해 무리하다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장자, 검술을 논하다 : 마음가짐과 생각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본문 130쪽)

『장자·잡편』 「설검」에는 장자가 칼싸움에 빠진 혜문왕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기억하기]

1. 조나라의 태자 조회는 무엇 때문에 시름에 잠겼나요?
2. 장자는 혜문왕이 제왕의 기품인 ‘천자의 검’ 대신에, 나랏일에 아무 쓸모없는 어떤 검에 빠져 있다고 일침을 가했나요?

[생각하기]

1.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나요? 그 꿈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 장자, 밤나무 동산에 가다: 꿈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본문 142쪽)

이 장은 『장자』 「제물론」 편의 핵심 우화인 ‘호접지몽’을 읽기 쉬운 이야기로 각색해 풀어놓았습니다.

[기억하기]

1. 장자가 이상한 새를 잡으려고 할 때 목격한 광경은 무엇이었나요?
2. 장자는 밤나무 동산에서 누구에게 쫓기고 말았나요?
3. 꿈에서 깨어난 직후 장자는 무엇을 고민했나요?

[생각하기]

1. 현실과 정말 비슷한 꿈을 꾸 경험은 있나요? 현실과 꿈의 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우리의 삶이 한바탕 꿈일 뿐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 말 잘 키우는 법? :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최고 (본문 154쪽)

장자는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와 흠을 굽는 기술자들의 행동을 꼬집으며, 세상의 인위적인 규제나 잣대가 오히려 생명과 사물의 고유한 본성을 해칠 수 있음을 비판합니다.

[기억하기]

1. 말의 본성을 억눌러 가축으로 길들이기를 잘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2. 훌륭한 목축장과 정교한 그릇, 화려한 건축물을 두고 장자가 언짢아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생각하기]

1. 장자는 흔히 타고난 본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 것을 주장한 사상가로 이해됩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목격한다면 장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2.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동식물이나 자연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기도 합니다. 유전자를 바꿔 작물의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고,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장자, 양식을 꾸러 가다 : 먼 물로는 가까운 불을 끌 수 없다 (본문 166쪽)

이 장에는 가난으로 인해 양식을 꾸러 갔다가 멸시를 당한 장자의 이야기가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장자가 궁색한 삶을 살았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2. 굶주린 장자가 양식을 빌리러 가자 감하후는 어떤 핑계를 대며 이를 거절했나요?
3. 말라 죽어가는 붕어에게 장자는 어떤 제안을 했나요?
4. 송나라 임금으로부터 마차를 얻은 사내에게 장자는 어떤 충고를 했나요?

[생각하기]

1. 장자는 배를 주릴지언정 권세가들에게 아침하는 삶은 살지 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장자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거북이, 물고기, 봉황 이야기 : 자신에게 맞는 인생을 살아라 (본문 178쪽)

이 장에는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보다 자유와 편안함을 훨씬 소중히 여긴 장자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장자냥’이 벼슬을 거절하며 두 대부에게 남긴 말을 채워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그 거북이라면, 죽어서 ()에 모셔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에서 ()를 끌며 마음껏 침범거리는 편이 좋겠습니까?”

2. 높은 오동나무에만 앉는 새 봉황이 날아가려 할 때, 올빼미는 자신이 물고 있던 ‘무엇’을 봉황이 빼앗아 갈까 봐 푸드덕거리며 위협했나요?

[생각하기]

1.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하고 높은 자리와, 소박하지만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한 삶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장자는 올빼미 이야기를 통해 권력에 집착하는 헤시의 옹졸함을 꼬집었습니다. 여러분도 헤시처럼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마음의 여유를 잃었던 적이 있었나요?

◎ 친구의 죽음 : 진정한 우정, 그리고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 (본문 190쪽)

이 장에선 평생의 친구였던 헤시오의 우정,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장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기억하기]

1. 장석이 코끝의 흠을 깎아내는 기술을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2. 성대한 장례식을 거절한 '장자냥'의 다음 대사를 완성해 봅시다.

“다 필요 없다. ()과 ()이 나의 관이란다. 해와 달, 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자연 만물이 나를 배웅해 줄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단다.”

3. 제자들은 장자가 죽은 후 육신이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장자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생각하기]

1. 친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장자는 죽음을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억하기] 정답

2쪽

1. ①
2. ①
3. ③

3쪽

1. 거센 바람이 불어야 거대한 날개를 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
2. 자신처럼 나뭇가지에 머무르면서 지내면 편한데, 봉새는 멀리 남녘 바다로 날아가려고 하기 때문.
3. 전날부터 마른 식량을 챙긴다. / 석 달 전부터 식량을 준비한다.

4쪽

1. 왕위를 넘겨줄 계승자가 없었다.
2. 못 들을 말을 들은 듯 귀를 박박 씻었다.
3. 햇불/태양/물/비
4.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
5. 자연스럽게 하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임금

5쪽

1. 견고하지 않아 물을 담을 수 없고, 너무 커서 표주박으로도 쓸 수 없기 때문.
2. 사계절 내내 빨래를 하고 생선을 잡았다.
3. 오나라 왕에게 비법을 바쳐 월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 그 대가로 포상을 얻었다.
4. 호숫가에 둥둥 떠다니며 놀 때 사용할 수 있다.

6쪽

1.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기 때문.
2. 넘치는 법이 없음.
3. 세상과 우주에 비하면 우리의 존재는 미약하다는 것을 떠올리기.
4. 평생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

7쪽

1. 소의 타고난 살결을 따라 뼈마디 사이로 자연스럽게 칼질을 했기 때문
2.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제안함.

8쪽

1. 노래기
2.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음
3.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있는 마음
4. 킁킁한 몸뚱어리에 갇힌 신세임.

9쪽

1. 제나라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할지 고민함.
2.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할 것/계자/화자/대진인

10쪽

1. 고기가 무는지 안 무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낚싯대만 들고 있었다.
2.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법령과 제도를 손보지 않았다.
3. 당파가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눈먼 관리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라 전체가 규정에 따라 도량형을 사용했다.

11쪽

1. 용 잡는 기술
2. 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

12쪽

1. 자신의 재빠름만을 믿고 오나라 왕을 약올렸기 때문
2. 대문을 닫아걸고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13쪽

1. 정사를 돌보지 않고 칼싸움에 빠진 혜문왕 때문에 국력이 약해짐.
2. 평민의 검

14쪽

1. 새는 사마귀를 노리고, 사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다.
2. 산지기
3.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는 것인지

15쪽

1. 백락
2. 사물의 자연적인 본성을 훼손했기 때문

16쪽

1. 권세가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
2. 나중에 세금을 거두면 거금을 주겠다고 함.
3. 나중에 임금을 설득해서 운하를 건설한 다음, 서쪽 강물을 끌어올 것이라고 함.
4. 송나라 임금은 흑룡보다 흉악한 자이며, 이후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음을 경고함.

17쪽

1. 종묘/진흙탕/꼬리
2. 죽은 생쥐

18쪽

1.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
2. 하늘/땅
3. 새에게 먹히나 땅에 묻혀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먹히나 매한가지일 뿐이다.